

[오피니언]

월/요/광/장

곽수종



미국에서 생활할 때다. 꽃과 나무를 위한 좋아하다보니, 작은 공간만 있어도 꽃이나 나무를 사다 심었다. 어느 해 가을 초엽, 땅에 코스모스 씨를 심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씨가 트더니 자라기 시작했다. 1m 쯤 커졌을 때, 꽃방울이 맷히며 갈래 꽃잎을 벌렸다. 보라색, 분홍색, 흰색 코스모스가 가녀리게 펼고 있는 모습이 아처로 위 보이다가도, 다양한 색조와 흐르진 모습에 훌륭해지고 만다.

하루는 차를 타고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꽃 이름을 물었다. 코스모스라고 대답하자 참 예쁜 꽃이라고 한다. 주인을 찾아 묻고 싶었는데 이제야 알게 돼 기쁘다며 꽃씨를 사서 심겠다고 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라 한다. 모습과 잘 어울린다.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한 것 같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표현에 차이가 있을지 언정,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웃는다. 영화를 보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은 미국이나 한국을 가리지 않고 악역을 도맡는다. 생김새로 사람을 평가

한다면, 일단은 잘 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다. '잘 생긴 사람은 인물값을 한다'고 하지만 고전에 나오는 '박씨 부인'에서 박씨 부인은 절색 미인은 아니었지만 한 집안을 일으키는

도, 노틀담성당의 부주교이면서 파지모도를 몰래 감춰준 클로드 프롤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장교를 사랑한 16살의 집시 에스메랄다. 결국 프롤로가 놓아 주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질투는 에스메랄다로 하여금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만들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인연의 굴레가 되풀이되면서 다시 광인절(狂人節) 군인들의 놀림에서 구출해준 파지모도에 의해 성당 안으로 피신하게 된다.

힘없는 한 인간의 사람이 종교라는 피난처에서 안식을 찾는 듯했지만 종교도

각색해 보자. 에스메랄다가 페뷔스보다는 프롤로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페뷔스가 에스메랄다의 칼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성당의 부주교면 카톨릭이 국교인 프랑스에서 부귀영화는 다 누렸을 법하다. 당시 교회는 신성불가침이나 특권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곳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왜 프롤로에게 모든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 못한 것일까, 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 16살의 에스메랄다는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둘째 나느니, 언젠가는 다 끊어버릴 권리와 부에 집착하느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사랑을 비록으로 만든 빅토르 위고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익스피어는 작가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들의 원작 속에 몇 개의 복선으로 숨어 있는 것 같다.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를 뿐이다. 보라색 코스모스 아래 잎이 흔들리기 시작. 지금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어떤 두 사람에게 소설 '노틀담의 꼽추'를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제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노틀담의 꼽추'

현모양처로 묘사된다. 생긴 대로 산다면, 인간은 유전학적으로 지구상에서 오래 전에 도태되었을 지 모른다. 생존법칙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니. 물론 잘 생기고 못 생긴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가 생각난다. 195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앙소니 퀸과 지나 로리 브리지 주연의 영화로 있다. 최근엔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반신불구'였던 파지모

완벽한 피난처는 아닌 듯하다. 노틀담성당의 부주교가 프롤로이기 때문이다. 결국 프롤로는 파지모도에 의해 죽음을 맞고, 에스메랄다는 싸움의 와중에서 죽는다. 파지모도도 에스메랄다를 연모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심을 털어 놓지 못하고 에스메랄다 옆에 누워 죽어간다.

배우를 뽑는 오디션을 가정하면 프롤로가 가장 악당스럽고, 에스메랄다와 장교 페뷔스가 가장 잘 생겼을 것이다. 파지모도는 이 두 종류의 인간상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노틀담의 꼽추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보자. 에스메랄다가 페뷔스보다는 프롤로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페뷔스가

에스메랄다의 칼에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성당의 부주교면 카톨릭이 국교인 프랑스에서 부귀영화는 다 누렸을 법하다. 당시 교회는 신성불가침이나 특권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곳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왜 프롤로에게 모든 마음을 주지 못했을까. 못한 것일까, 하지 않은 것일까. 아마 16살의 에스메랄다는 거짓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둘째 나느니, 언젠가는 다 끊어버릴 권리와 부에 집착하느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사랑을 비록으로 만든 빅토르 위고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익스피어는 작가다.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그들의 원작 속에 몇 개의 복선으로 숨어 있는 것 같다.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를 뿐이다. 보라색 코스모스 아래 잎이 흔들리기 시작. 지금도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어떤 두 사람에게 소설 '노틀담의 꼽추'를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제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문형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겹고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던 동요가 남북 화해의 물결을 타고 이제는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찬가로 바뀌었다. 지난 추석에는 1천만명이 넘는 귀성객이 민족 대이동을 하였다. 하지만, 가족과 친·인척들을 지쳐 두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실망민들은 임진강변에 세워진 철책 앞에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지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어 철조망에 닦닥다닥 붙여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들은 6·25때 헤어진 가족들이 대부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탈북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생활환경·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웠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노력해도 일정한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한 탓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별 등을 자칫 잘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범죄로 어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모두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내 형제라 생각하고 포근히

기고

신창섭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위생 매립장 등 혈오시설은 지자체의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말을 끄내기 위해 레일을 만큼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면 서도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자기 집 주변에 설치하는 데는 극력 반대한다. 이를바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낌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이 때문에 미을 주변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때마다 주민이 주대책, 환경오염 및 쓰레기 반입 문제 해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극적으로 주민들과 타협을 이뤄낸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 처리장은 그 좋은 사례다. 영광군 쓰레기 처리장은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송사태로까지 비화되는 등 10개월여동안 표류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영광군의회와 지역 기관·사회단체 대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 우여곡절 끝에 쓰레기 반입이 이뤄졌고, 정상 가동에 이르게 됐다.

의회·집행부 상생의 길

시위로 인해 행정은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최근 디지털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목표는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이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한 정보, 자료들을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행정의 이념 또는 지향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이라는 명확하고 간단한 개념인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같은 투명성이라고 해도 공무원과 주민이 경험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지선정부터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곤 한다.

군은 주민들과 함께 10년간 100억 원대의 주변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인근에 골프장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체결했다. 이 처리장은 최첨단 공법이 도입된 소각 및 매립시설과 완벽한 차수 시설을 갖춰 영광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광군의회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은 본격 가동은 혈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지역사회와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해결한 수법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영광군의회가 군수마저 부재중인 상황에서 행정(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어려움에 처한 군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해낸 것은 다른 지방의회에도 귀감이 될 만하다.

〈영광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임신여성 태아검진 비용 의료보험 혜택 크게 늘려야

상했다.

이뿐만 아니다. 한달에 한두번 꼬박꼬박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고 초음과 검사도 받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한돼 있다. 임산부 부담이 너무 크다.

저출산 문제를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 지우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 할 일이다. 그레이만 조금 늦게 결혼한 여성들도 부담없는 마음으로 출산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송영빈·목포시 운동동

'물건 없는데도 오라가라' 부동산중개업소 상술에 분통

현재 살고 있는 개인주택이 좀 작고 낡아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 아파트를 찾았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세 물건이 있다고 해 가보면 "그 물건이 조금 전 팔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인줄 알았다. 그런데 몇 번 속고 나니 그것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방

식이라는 것이다. 전화를 하면 "물건이 없는데도 일단 있다"고 말해 손님을 오게 한 뒤 진짜 다른 물건이 있는지 찾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뭐하려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바쁜데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헛걸음을 하게 하는 그네들의 상술에 짜증이 날 지경이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동동

시설

'성공체전' 이끈 힘모아 지역발전 앞당기자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14일 폭파됐다. 대회기간 경기장 주변에 각종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하고 광주디자인밸리에서 축제 등을 열어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했다. 광주가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소득도 올렸다.

무엇보다 광주체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스들이 선수단을 지원했고 교통질서 확립과 친절·청결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를 자랑하는 5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광주를 찾은 외지인들에게 감동을 안겨 준 것이다.

광주시는 체전을 통해 문화도시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관광업 등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노사와 계층간 화합 등 상생의 이미지도 새롭게 각인시켰다. 광주체전에서 축적된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통합신당 경선 후유증 최소화 대책 있나

발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후보 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통합신당은 15일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갖고 8개 지역 선거인단 투표와 제 3차 휴대전화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선후보 확정에 개표작업만 남아 있는 것이다.

통합신당이 술한 과정 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마친 것은 다행이다. 후보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경선일정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지만 한 명의 후보도 이를하지 않고 완주한 것은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선거사상 최초로 도입한 휴대전화 '모비일 투표'도 주목을 받으며 신선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경선 전반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초반부터 '유령 선거인단', '박스폐기', '금품매수' 등 논란이 일었고 후보진영간 폭행과 불법·부정 선거 시비 등으로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 관심도 낮아 경선 바탕돌이를 통해 대선구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능력도 부족했다. 불법선거 논란이 끼어있지만 대응을 소홀히 해 사태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경선일정 등 경선룰이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누더기' 경선이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선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경선 후유증이다. 후보간 고소·고발에서 드러나듯 경선 불복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경선과정의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누더기' 경선이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선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경선 후유증이다. 후보간 고소·고발에서 드러나듯 경선 불복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경선과정의 원칙 없이 흔들리면서 '누더기' 경선이란 비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경선 전반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초반부터 '유령 선거인단', '박스폐기', '금품매수' 등 논란이 일었고 후보진영간 폭행과 불법·부정 선거 시비 등으로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국민의 관심도 낮아 경선 바탕돌이를 통해 대선구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능력도 부족했다. 불법선거 논란이